

초등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양상 연구

장동민 전주오송초등학교 교사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국어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의 복합양식 매체 자료 제작 과정과 제작한 복합양식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통해 다양한 양식이 연결된 정보를 주고받는다. 기존의 인쇄물이 여전히 많은 학생 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보자료는 점점 더 이미지, 색상 및 문자의 조합에 의존한다. 따라서 학생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합양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필자가 디지털 자원을 사용하는 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의 수준은 다양하다. 왜냐하면,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학생들의 양식 선택은 텍스트 제작에 대한 이전의 경험과 지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Kress, 2009; Pahl & Rowsell, 2019). 양

식(mode)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문화 영역이나 사회 영역에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양식 자원은 텍스트를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Smith, 2017; Sofkova Hashemi, 2018; Svärden Åberg & Åkerfeldt, 2017) 되며 이러한 양식 자원 활용 경험의 부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혼동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합양식 매체 자원에 관해 경험하고(Jewitt, 2012; New London Group, 1996)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매체 자원을 사용하여 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도 다양한 복합양식성과 관련한 글쓰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공성수, 2018; 백혜선·박소희, 2021; 서수현·옥현진,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유승아, 2014).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디지털 환경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구(공성수, 2018; 서수현·옥현진,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유승아, 2014)는 그림과 문자, 사진을 활용한 글쓰기 연구였다.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은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의 플랫폼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에 의해 제한된 양식의 활용이 아닌 다양한 양식을 활용한 글쓰기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의 과정을 분석하기보다 이미 완성한 텍스트의 복합성을 분석하였다(공성수, 2018; 백혜선·박소희, 2021; 서수현·옥현진,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유승아, 2014). 주지하듯이,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 필자의 이전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에 따라 어떠한 양식 자원을 선택하는지와 그것을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공성수, 2018; 서수현·옥현진,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유승아, 2014). 실험은 그 결과의 분석

을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실제 디지털 환경보다는 종이 텍스트에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한 것을 분석하였다. 현재 많은 복합양식 텍스트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실험도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에서 양식의 선택과 배치의 결과, 텍스트의 응집성 여부에 대한 탐구는 없었다(서수현·옥현진, 2013; 옥현진·서수현, 2011; 유승아, 2014). 복합양식 텍스트는 여러 양식이 상호 작용하며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응집성(Cohesion)¹⁾이 필요하다(Meier, 2022). 따라서 학생 필자들이 제작한 복합양식 텍스트가 의사소통의 목적에 맞게 응집성을 확보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여러 양식을 배치하여 복합양식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그 텍스트가 응집성을 실현하여 ‘텍스트다움(textness)’을 실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을 위한 학생 필자 교육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필자가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양식 자원과 기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양식 자원이 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Affordances)과 제한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학생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분석하여 양식 간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어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생 필자가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활용하는 양식 자원

1)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Cohesion)을 결속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과 기술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양식과 기술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학생 필자가 완성한 복합양식 텍스트 양식 간의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필자의 양식 선택

복합양식성은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필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를 나타내거나 다양한 양식들을 포함한 어떤 사건이나 결과를 의미한다(Kress, 2003, 2009; Kress & van Leeuwen, 2001). 즉, 복합양식성은 필자가 동영상, 그림, 음향, 문자, 몸짓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필자가 복합양식성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할 때,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식 자원(modal resources)이다. 여기서 양식 자원은 그 양식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자에 의해 사용될 때 나타나게 되는 잠재력과 제한점을 뜻한다(Bezemer & Kress, 2008). 예를 들어, 문자 언어를 활용할 때, 낱말, 문장, 글자의 크기, 글자의 간격, 글자 색깔, 구두점 등이 문자 양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양식 자원이 된다(Bezemer & Kress, 2008).

그런데 이러한 양식 자원은 그 양식이 사용되는 매체의 특성과 필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전의 경험에 따라 사용이 지원되거나 제한된다(Danielsson & Selander, 2016; Jewitt, Bezemer, & O'Halloran, 2016; van

Leeuwen, 2005). 따라서 필자는 복합양식성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양식과 양식 자원을 선택하게 된다.

Dahlström(2022)은 스웨덴의 초등학생 5학년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양식 선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5명의 연구 대상 학생 중 Johan은 종종 학교 수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양식 자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설계할 때 태블릿의 행위 유도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Johan은 학교 수업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자신의 랩을 녹음한 파일을 사용하는 데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그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학교 밖의 환경에서 얻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그에게 다양한 양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고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비디오와 이미지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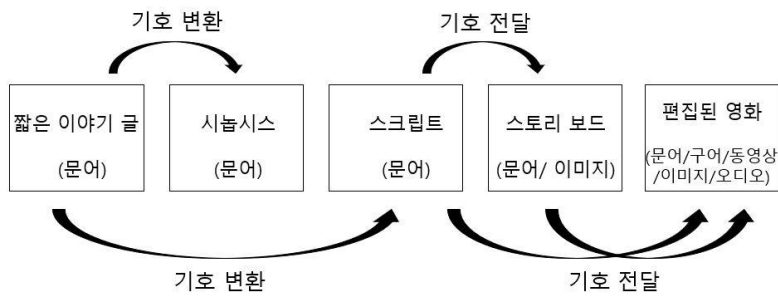
반면, Ann은 인터넷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결국, Ann은 교사가 원하는 내용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먼저,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그림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찾기 위해 자신의 그림과 비슷한 사진을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함으로써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제작하는 과제를 맡은 학생들의 다양한 양식 자원 선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이 종이 기반 텍스트 제작을 넘어서는 사진과 영상, 음성 편집 기술, 이미지 검색 기술을 포함하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예술과 같은 다른 리터러시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Dahlström(2022)의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양식 자원에 대한 활용 경험의 부족이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양식 자원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제시한 연구(Dalton, 2014; Sofkova Hashemi, 2018)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2.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과 관련한 연구

필자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양식과 양식 자원을 선택하고 이 양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제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구성과정에서 필자는 기호의 변환과 전달의 과정을 거친다. 기호의 변환이란 한 양식 내에서 일어나는 변환을 의미(Bezemer & Kress, 2008)하고 기호의 전달은 서로 다른 양식을 걸쳐 이루어지는 변환을 뜻한다(Gilje, 2010). Gilje(2010)는 매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짧은 이야기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호의 변환(transformation)과 전달(transduction)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1>은 기호 사이의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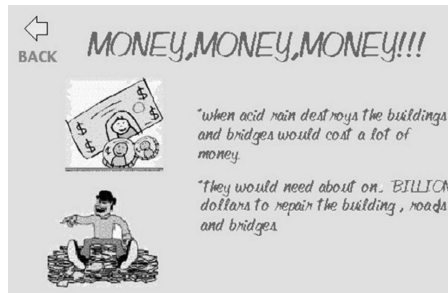
<그림 1> 기호 사이의 상호 작용

짧은 이야기 글은 시놉시스와 스크립트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문어로부터 문어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기호의 변환이다. 반면, 스크립트와 스토리 보드는 영화로 전환되면서 다른 양식으로 변환되게 되고 이것은 기호

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Gilje(2010)의 연구가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기호의 변환과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면 Shanahan(2013)의 연구는 양식 간 배치를 통한 그들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활용된 시각 기호의 메타적 기능 그리고 이미지와 문자 사이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을 체계기능 복합양식 담화 분석 방법이라고 한다(O'Halloran, 2011; Unsworth, 2006).

Shanahan(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산성비의 문제에 관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작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하나의 공간 안에서 두 양식의 의미가 일치하는 유형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으며 단 한 팀만이 자신의 생각을 인용하는 연결 유형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다음 <그림 2>는 두 양식이 일치하는 유형이다.



<그림 2> 두 양식의 일치 유형(Shanahan, 2013: 105)

<그림 2>를 제작한 학생은 생태계, 다리, 집 그리고 자동차가 산성비로 인해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부분 문자 양식으로 내용을 표현하고 그림 양식은 이를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한편, 단순히 두 양식의 일치 유형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투사한 연결 유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두 양식의 연결 유형(Shanahan, 2013: 109)

〈그림 3〉에서 화살표와 결합 된 원형 패턴의 쓰기 블록 통합은 두드러진 그림과 문자의 설계 요소를 함께 연결했다. 문자가 없다면 독자는 산성비의 순환적 성격과 산성비가 생태계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과 문자 양식에 투사함으로써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 연결된 관계를 독자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필자가 양식과 양식 자원을 선택하고 양식의 변환, 전달 그리고 배치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과정을 통해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할 때, 필자는 응집성(Coherence)을 고려하여야 한다. 응집성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것으로 응집성이 실현되지 않은 텍스트는 그 의미 전달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특히, 여러 양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필자는 양식을 선택하고 이를 배치하는 데 응집성을 고려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Meier, 2022).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초등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양식과 양식 자원의 선택으로부터 배치와 응집성까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일산시에 위치한 A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 학생 25명이다. 초등학교 5학년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적합한 양식을 선택하여 복합양식 텍스트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의 디지털 환경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수준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학급의 학생들은 Power Point(PPT)의 사용을 국어와 사회 수업에서 활용한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며 기본적인 문자와 그림 삽입과 같은 사용법은 알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PPT 자료는 모두 학교 컴퓨터실에서 사회 수업 중 작성된 것이며 총 25개 파일 31개 슬라이드였다.

2. 연구 절차

먼저, 학교 컴퓨터실의 컴퓨터에 무료 바탕 화면 녹화기를 설치하였다. 무료 바탕 화면 녹화기는 윈도우에 게임 녹화 기능을 위한 앱과 비영리 목적의 바탕 화면 녹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중, 각 컴퓨터의 성능 및 앱 설치 상태에 따라서 편리한 것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화면 녹화가 되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배운 고려 청자의 우수성에 관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그림, 사진, 동영상, 문자, 음성 모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PPT를 한 장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다. 실험이 끝난 다음, 학생들의 컴퓨터 화면이 녹화된 자료와 PPT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대상 학생 필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

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근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의 분석을 컴퓨터 활용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3. 분석 도구 및 방법

1) 양식 자원과 기술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의미의 구성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New London Group, 1996). 여기서 필자가 선택하는 디자인은 의미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과 양식 자원을 포함하며, 이것은 필자의 다양한 배경 지식과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 필자는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원, 양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의미 만들기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고려한다(New London Group, 1996). 복합양식 제작 과정은 필자의 의미 만들기 활동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필자가 활용하는 양식 자원과 기술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의 목록은 Dahlström(2022)에서 양식 자원과 기술 목록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일부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표 1> 양식 자원과 기술 목록(Dahlströ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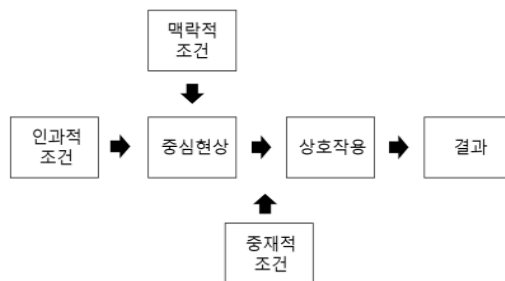
양식	양식 자원과 기술
문자	글꼴, 음영, 색, 크기, 배치, 읽기, 쓰기
음성	검색, 다운로드, 편집, 삽입, 배치, 듣기
동영상	검색, 다운로드, 편집, 삽입, 배치, 보기
그림, 사진	검색, 다운로드, 편집, 삽입, 크기, 배치, 보기

디지털을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 1>의 자원과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록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필자들이 이러한 자원과 기술 중 어떠한 것을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2) 양식과 양식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연구 대상 학생 필자의 PPT 제작 과정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필자와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제작 과정 중, 양식과 양식 자원이 학생 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근거이론 접근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근거이론이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변기용, 2020: 48). 패러다임 모형은 근거 이론적 방법 연구에서 드러나는 상위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도식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의 도출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양식과 양식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그 제한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그림 4>는 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이다.



<그림 4> 패러다임 모형

중심 현상(Core phenomenon)이란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특정한 특성과 상황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학생 필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양식과 양식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이란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이란 인과적 조건의 영향을 축소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 또는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변기용, 2020). 본 연구에서는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적 속성(Contextual condition)이란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의 배경 혹은 상호 작용의 배경이 된다. 상호 작용(Actions interaction)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일종의 개인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필자의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결과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 필자가 제작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적 접근의 분석을 위한 코딩 과정을 Nvivo 14를 활용하였다. Nvivo 14는 질적 분석 방법의 전통적인 방법론적 측면에서 같다. 그러나 전통적인 질적 분석 방법은 엑셀과 워드 프로세스와 같은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면 파일과 폴더의 관리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분석 과정의 오류 가능성이 커진다(Kelle, 2004). Nvivo 14는 질적 분석의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의 오류 가능성을 낮춰주어 연구자가 정확한 질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복합양식 텍스트 양식의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은 어휘의 연관성과 접속성 관계를 통해 수행되고 분석될 수 있다(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 외, 2021). 어휘의 연관성이란 어휘적 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의어와 상·하

위어의 사용과 어휘의 반복 사용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접속성 관계는 문법적 접속 자원에 속하는 것으로 상술, 연장, 보강을 통해 실현된다. 즉, 응집성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어휘의 반복 또는 접속 관계를 통한 의미의 상세한 제시, 새로운 메시지 덧붙이기, 보충으로 텍스트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형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합양식 텍스트는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양식의 배치와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응집성이 실현된다. 양식 간 상호 작용은 Shanahan(2013)의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의 상호 작용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Shanahan(2013)이 분석한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유형이다.

<표 2>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Shanahan, 2013: 217)

유형	하위 유형	의미
일치	예(Exemplification)	예를 통해—이미지는 텍스트를 정교화하고, 텍스트는 이미지를 정교화
	설명(Exposition)	두 양식이 다른 방법으로 같은 정보 제시
	단일한 공간성 (Homospaciality)	공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독립체로서 두 개의 다른 양식
	대응(Equivalence)	여러 양식으로 하나의 일관된 의미 표현
상보적	증대(Augmentation)	각 양식이 다른 양식과 일관되게 추가적인 의미를 제공
	일탈(Divergence)	이미지와 텍스트가 나타내는 관념적 의미가 서로 상이한 경우
연결	투사(Projection)	발화 또는 생각을 인용하거나 보고
	결속(Conjunction)	이미지와 문자가 인과적, 시간적, 공간적 관계로 연결

<표 2>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필자는 두 양식 간의 일치, 상호 보완 그리고 연결의 과정을 통해 언어와 이미지가 상호 작용하도록 복합양식 텍

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미지와 문자가 서로 관련되지 않거나 이미지와 문자가 같은 의미를 구성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의사소통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텍스트는 응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 〈그림 5〉는 응집성이 확보되지 못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예이다.



〈그림 5〉 응집성이 확보되지 못한 텍스트(Shanahan, 2013: 211)

〈그림 5〉는 산성비가 다리, 자동차 그리고 집을 파괴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Ecology(생태계)라는 문자 양식과 그림 양식인 자동차, 다리, 돈을 의미하는 기호, Home(홈)을 나열해서 배치하였다. 이 복합양식 텍스트에는 생태계와 다리, 자동차 그리고 집에 영향을 미치는 산성비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또한 양식 간에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떠한 통일된 의미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 텍스트가 응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Shanahan(2013)의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상호 작용 유형을 바탕으로 학생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응집성을 평가한다.

IV. 연구 결과

1. 양식 자원과 기술 사용 양상

1) 선택한 양식 자원과 기술

(1) 양식 자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학생 필자들이 선택하여 활용한 양식 자원은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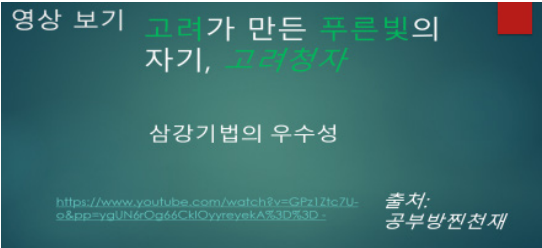
<표 3> 양식 자원

양식	양식 자원
문자	• 크기, 색깔, 글꼴, 음영, 배치
그림과 사진	• 크기, 배치
동영상	• 크기, 배치

연구 대상자 25명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 그림(사진), 동영상 양식을 사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학생 필자는 문자 양식 자원에서 글자 크기, 색깔, 글꼴, 음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배치하고 싶은 위치에 문자를 배치하였다. 그림과 사진은 검색을 활용하여 자신이 찾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하였다(84%).

그러나 동영상의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학생은 많았으나 이를 직접 자신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학생 필자 25명 중, 32%인 8명 정도였다. 또한 동영상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모두 링크를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6>은 링

크 기능을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에 동영상상을 삽입한 예이다.



〈그림 6〉 동영상 링크의 활용(P11 학생)

(2) 기술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선택하거나 활용한 기술 자원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기술 자원

기술	기술 자원
검색	• 포털 사이트 검색 • 유튜브 검색 • 읽기, 보기
편집	• 문자, 그림(사진) 크기 조절 • 그림(사진) 배경 제거
다운로드	• 그림(사진) 캡처(capture)
구성	• 타이핑(typing) • 그림(사진) 및 동영상 삽입

학생 필자들의 검색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20%), 지식 백과(12%), 이미지(32%) 검색을 활용하거나 유튜브(36%)에서 검색을 활용하였다. 블로그를 활용한 학생 필자 중, 주로 온라인상의 상단에 제시되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비율이 60%로 가장 많았고 하단에 제시된 블로그나 다른 페이지에 있

는 블로그를 활용한 학생 필자는 40%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의 검색 행태에서 주로 상단에 제시되는 부분에 사람들의 주의가 가장 많이 머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Athukorala, Gowacka, Jacucci, Oulavirta, & Vreeken, 2016; Lorigo, Pan, Hembrooke, Joachims, Granka, & Gay, 2006).

지식 백과를 활용하는 학생 필자들은 포털 사이트의 배너에서 지식 백과를 찾았고 이것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쉽게 탐색하였다. 이들은 본 실험 이전에 이미 지식 백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는 필자들은 먼저 관련 주제어를 이미지 검색을 통해 검색하고 검색된 이미지를 훑어보며 자신이 찾는 정보가 제시된 이미지와 연결된 사이트로 이동하여 정보를 자세히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활용한 학생 필자들은 유튜브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였으며 동영상 클릭하여 넘겨 보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등장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살펴보는 학생도 있었다.

다음으로 편집 기능에서는 문자, 그림(사진) 크기 조절 기능은 연구 대상인 25명의 학생 필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림(사진) 배경 제거 기능을 활용한 학생 필자는 8%로 두 명의 학생이 사용하였다. 다운로드 기능은 그림과 사진을 캡처하여 활용하였으며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활용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양식 구성에서 연구 대상 학생 대부분이 타이핑(typing)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는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여 컴퓨터의 키보드를 통한 타이핑이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사진)의 삽입에는 익숙하였다. 동영상의 경우 직접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부분을 편집하여 삽입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 대부분 링크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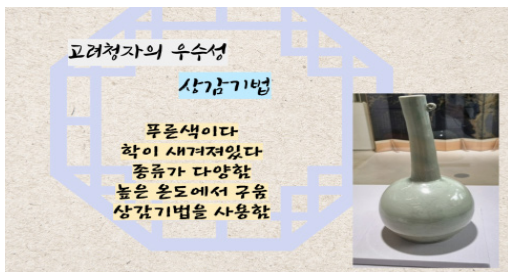
2) 양식 자원과 기술 사용 비율

연구 대상자 25명의 복합양식 텍스트의 양식과 기술 자원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양식과 기술 자원 사용 비율

양식	양식 자원과 기술	사용한 학생 비율(명)
문자, 그림(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크기, 색깔, 배치, 글꼴, 음영 검색, 다운로드, 크기 조절, 배치, 편집 	60%(15)
문자,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크기, 색깔, 배치, 글꼴, 음영 검색, 삽입(링크 걸기) 	16%(4)
그림(사진),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 다운로드, 크기 조절, 배치, 편집 검색, 삽입(링크 걸기) 	4%(1)
그림(사진), 동영상,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 다운로드, 크기 조절, 배치, 편집 검색, 삽입(링크 걸기) 글자 크기, 색깔, 배치, 글꼴, 음영 	4%(1)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 크기, 색깔, 배치, 글꼴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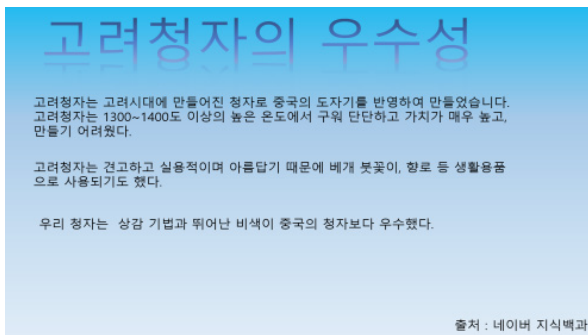
양식 자원과 기술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문자, 그림(사진) 두 양식 자원과 기술을 사용한 학생 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60%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생 필자에게 가장 익숙한 텍스트가 문자와 그림(사진)으로 구성된 복합 양식 텍스트 구조이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 <그림 7>은 문자와 그림(사진)으로 구성된 P5 학생의 복합양식 텍스트의 예이다.



<그림 7> 그림과 사진으로 작성된 복합양식 텍스트(P5)

다음으로, 문자와 동영상으로 구성된 복합양식 텍스트는 16%였으며 그림(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성된 복합양식 텍스트가 4%의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그림(사진), 동영상, 문자를 모두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한 학생은 4%였다. 마지막으로 문자만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여 복합양식 식성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 필자의 비율은 16%였다.

유승아(2014)의 연구에서 5학년 학생 30명 중,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문자만을 사용하여 복합양식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5명의 학생 중, 4명(16%)만이 문자 양식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유승아(2014)의 연구 설계가 종이에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인 데 반해,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 필자들이 좀 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다음 <그림 8>은 단일 양식으로 작성된 PPT의 예이다.



〈그림 8〉 단일 양식(문자)으로만 작성된 텍스트(P17)

P17 학생은 모두 문자 양식으로만 PPT를 작성하였다. P17 학생은 지식백과에서 고려청자를 검색하였으며 검색한 내용을 정독하고 이를 메모지에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메모지에 요약한 내용을 PPT로 전환하였다. P17 학생은 읽기와 요약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으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

는 글쓰기를 통해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양식 자원의 사용을 통한 텍스트의 구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학생 필자들은 주로 문자가 중심이 되고 다른 양식은 단순히 문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이미지화 역할에 머물러있었다. 또한 다른 양식이 추가 되어 복합양식을 구성하는 경우 단순히 그것이 모든 설명을 대체하는 양상이었다. 즉, 각 양식의 역할이 나뉘어 있기보다 양식을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것은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여 좀 더 다양한 독자에게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기존의 종이 인쇄물의 단일 텍스트의 작성에 학생들의 생각이 머물러있음을 보여주었다.

2. 행위 유도성과 제한의 패러다임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는 25명의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 과정에서 양식과 양식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의 인터뷰 내용 전사 자료와 작성 과정에 대해 녹화한 화면 영상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전사 자료는 PDF 파일로 총 37페이지였으며 분석한 동영상의 길이는 평균 16분 40초의 25개 영상이었다. 분석은 인터뷰 전사 자료와 사진, 동영상 모두를 코딩할 수 있는 Nvivo 14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국어교육 박사과정)와 교차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의 결과, 297개의 레퍼런스(Reference)²⁾를 포함하는 33개의 코드로 코딩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2차 코딩이 이루어졌는데 2차 코딩은 1차 코딩으로 구성된 코드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각 코드에 대

2) 코딩된 전사 자료의 문장이나 단어, 그림, 사진, 영상의 일부를 레퍼런스라고 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는 레퍼런스들이 모여 하나의 범주 코드를 이룬다.

한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면서 더 큰 범주의 코드로 코딩하였다. 2차 코딩 결과, 33개의 코드는 24개의 큰 범주의 코드로 도출되었고 3차 코딩을 통해 24개의 범주는 12개의 상위 범주로 코딩되었다. 연구자는 3차 코딩의 결과, 더 이상 새로운 상위 범주로 코딩할 하위 범주의 출현이 없는 ‘이론적 포화’³⁾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코딩을 멈췄다.

다음으로 12개의 상위 범주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은 각 상위 범주가 포함하고 있는 레퍼런스의 단어의 유사도에 따라 이를 묶어 주는 기능이 있어 상위 범주를 패러다임 항목으로 구성할 때, 연구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2개 범주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9>는 12개 범주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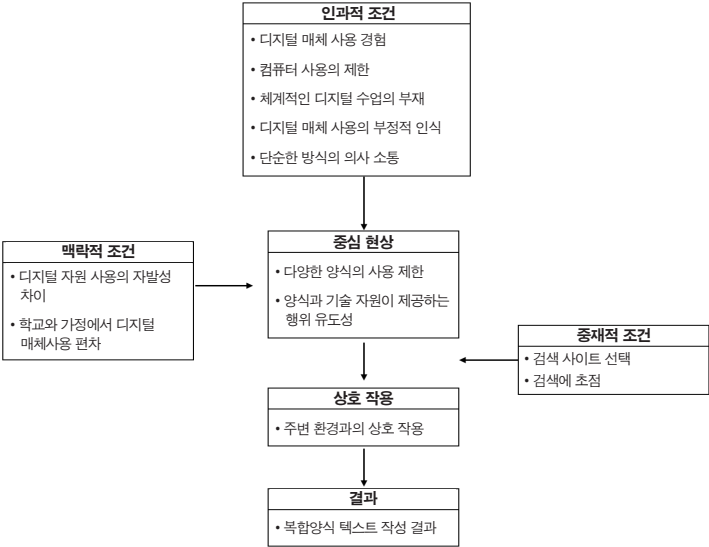
<그림 9> 클러스터 분석 결과

3) ‘이론적 포화’는 하위 범주와 이들의 속성이 명백하게 연결되고 통합되어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변기용, 2020).

클러스터 분석을 바탕으로 12개 범주에 대해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다음 <표 6>은 본 연구의 패러다임 항목과 범주이며 <그림 10>은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이다.

<표 6> 코딩 자료의 범주화

패러다임 항목	범주
중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양식의 사용 제한 • 양식과 기술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
인과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사용 경험 • 체계적인 디지털 매체 수업의 부재 • 컴퓨터 사용의 제한 • 단순한 방식의 의사소통 • 디지털 매체 사용의 부정적 인식
맥락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원 사용의 자발성 차이 •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매체 사용 편차
중재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 사이트 선택 • 검색에 초점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그림 10> 패러다임 모형

중심 현상으로 ‘다양한 양식의 제한’과 ‘양식과 기술 자원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학생 필자의 복합 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의 분석 결과, 학생 필자들은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 있어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문자와 그림(사진) 위주(60%)로 작성하거나 문자만을 사용(16%)하여 복합양식성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된 P17 학생의 경우 글의 요약과 작성에 자신감이 있어 다른 양식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양식을 활용한 텍스트에 비해 독자에게 흥미가 떨어지는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는 학생 필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과거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 본 경험과 디지털 매체의 행위 유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Dahlström(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의 범주는 ‘디지털 매체 사용 경험’, ‘체계적인 디지털 매체 수업의 부재’, ‘컴퓨터 사용의 제한’, ‘단순한 방식의 의사소통’, ‘디지털 매체 사용의 부정적 인식’이다. 학생 필자들의 인터뷰 분석 결과, 디지털 매체의 사용 경험이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대부분이 문자와 단순한 이모티콘 활용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디지털 매체 수업의 부재도 원인이었다. 학생 필자들은 아직도 학교 수업에서 종이 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작성이 주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필자들은 집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사용만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방식도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TV와 가족과의 대화보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의 간단하게 구성된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설명보다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로 인해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문자와 그림 설명보다 영상을 링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복합양식 텍

트를 작성한 학생 필자가 1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학생 필자들은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매체 사용 중독에 관해 주의하고 있었다.

맥락적 조건은 ‘디지털 자원 사용의 자발성 차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매체 사용 편차’이었다. 학생 필자들은 앞서 제시한 인과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매체 사용에서 편차가 있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담임 교사의 영향, 부모의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매체 사용 경험의 편차가 컸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 차이는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디지털 자원 사용의 자발성에 차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P3 학생의 경우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P3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디지털 매체 사용에 대해 부모님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태블릿의 앱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적 영역이 가정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양길석·옥현진·서수현(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P3 학생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그림 11〉 다양한 양식 자원이 사용된 복합양식 텍스트(P3)

중재적 조건은 ‘검색 사이트 선택’과 ‘검색에 초점’이었다.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검색 사이트 선택과 검색에 초점이 도출되었다. 학생 필자들은 자신의 읽기·쓰기 능력과 디지털 환경에서 자원 사용 능력에 따라 검색 사이트를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읽기·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동영상 또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은 검색에 초점을 두었는데 자신의 양식 자원 활용 능력에 따라 그에 플랫폼을 선택하여 검색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동영상과 같은 양식을 활용하려는 학생들은 유튜브 검색에 초점을 두었으며 읽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포털의 지식 백과를 활용하였다.

상호 작용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학생 필자들은 PPT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주도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능숙한 작가가 아니었던 P3 학생은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동영상이나 그림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읽기·쓰기에 능숙하지만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P17 학생은 단일(문자) 양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양식과 기술 자원의 사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능력에 따라 학생 필자들은 각자 다른 양식 구조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3. 복합양식 텍스트 양식의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 평가

복합양식 텍스트의 응집성 평가는 양식 간의 상호 작용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응집성을 보여주는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응집성 평가는 국어교육 박사 1인과 15년 경력의 초등교사가 평가하였다. 응집성 평가 대상은 문자로만 텍스트를 작성한 4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21명

학생의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7>은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양상과 응집성 평가 결과이다.

<표 7>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양상과 응집성 평가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양상			상호 작용 유형 중, 응집성 있는 텍스트 비율(명)
상호 작용 유형		비율(명)	
일치	예시	43%(9)	33%(3)
	설명	24%(5)	20%(1)
상호 보완	증대	33%(7)	29%(2)

먼저,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21명의 학생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에서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상호 작용 유형은 일치 유형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상호 보완은 34%였다. 학생 필자들은 주로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일치 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5학년 학생들이 일치 유형보다 상호 보완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유승아(201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것은 유승아(2014)의 연구가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인 데 반해,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 학생 필자들은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일치 유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검색하여 조사한 글을 이미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그림 12>는 일치 유형의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고려청자의 우수성(출처: 푸르넷 공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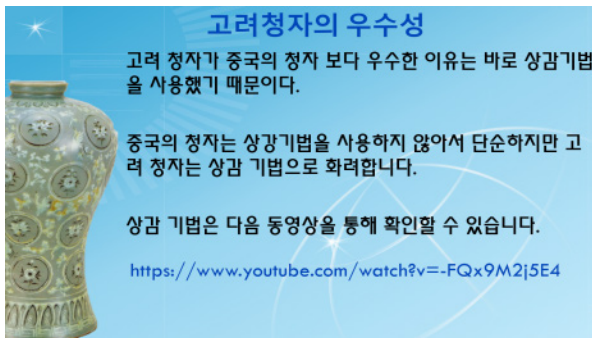
삼강 기법

삼강 기법은 청자의 표면에 무늬를 새긴 다음 파낸 부분에 다른 색의 흙을 넣는 것이다.



〈그림 12〉 일치 유형(P9 학생)

다음으로 상호 보완 유형이 33%를 나타내었다. 학생 필자들은 상호 보완을 자신이 문자 양식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내용의 동영상 혹은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13〉은 상호 보완 유형을 사용하여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그림 13〉 상호 보완 유형(P25 학생)

다음으로, 복합양식성을 만족한 21명의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의 응집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6개의 복합양식 텍스트만이 응집성을 가진 텍스트였다. 나머지 15개의 복합양식 텍스트는 응집성을 확보하지 못한 텍스트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 8〉은 응집성이 없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유형과 비율이다.

〈표 8〉 응집성이 없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유형과 비율

유형	비율
양식 간 설명 불일치	40%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33%
설명 부족	27%

응집성이 확보되지 못한 텍스트 15개 중, 40%인 6개의 텍스트는 양식 간 설명의 불일치를 보였다. 다음 〈그림 14〉는 양식 간 불일치를 보인 복합 양식 텍스트의 예이다.

고려 청자 삼강 기법의 우수성

고려 청자는 삼강 기법을 활용하여 화려하고 우수하다.

백제가 만든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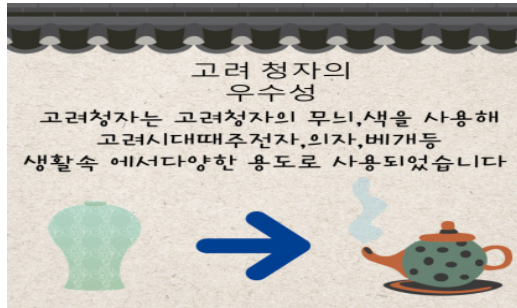


고려가 만든 항아리



〈그림 14〉 양식 간 불일치 유형(P20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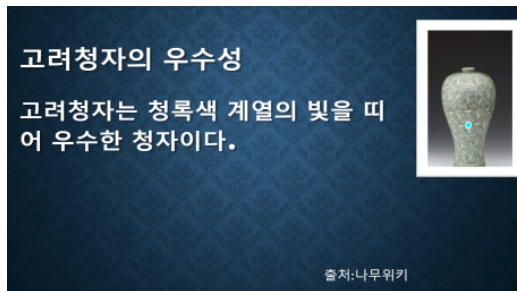
〈그림 14〉를 살펴보면, P20 학생은 고려청자가 우수한 이유를 삼강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양식의 선택은 이에 대한 설명이 아닌 백제의 항아리와 고려의 항아리를 비교하여 제시하여 응집성이 없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텍스트는 33%로 5개에 해당하였다. 다음 〈그림 15〉는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텍스트의 예이다.



〈그림 15〉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유형(P16 학생)

〈그림 15〉를 살펴보면, P16 학생이 제작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제목은 ‘고려청자의 우수성’이다. 그러나 내용 설명과 그림 양식을 통한 설명은 고려 청자의 다양한 사용 용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집성이 없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 부족으로 응집성을 확보하지 못한 텍스트는 15개 중 27%인 4개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16〉은 내용 설명의 부족으로 응집성이 없는 텍스트의 예이다.



〈그림 16〉 내용 설명의 부족 유형(P1 학생)

〈그림 16〉을 살펴보면, 고려청자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다음 즉, 텍스트의 응집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어휘의 반복 혹은 접속 관계를 통한 상세한 의미의 전달이 필요하다(이관규 외, 2021). 그러나 P1 학생이 작성한 텍스트는 핵심 어휘의 반복이나 양식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내용의 상세한 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그림 양식은 문자 양식과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떠한 의미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 필자가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응집성 실현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복합양식성을 확보한 21개의 텍스트 중에서 텍스트의 응집성이 실현되지 못한 텍스트는 15개였으며 유형은 양식 간 설명의 불일치(40%)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33%), 내용 설명의 부족(27%)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필자 25명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을 분석하여 학생 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중 활용하는 양식과 기술 자원, 행위 유도성과 제한 그리고 복합양식 텍스트의 양식 간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 필자들은 익숙한 문자 양식을 중심으로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다른 양식은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여 보여주는 이미지화에 머물고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 경험’, ‘체계적인 디지털 수업의 부재’, ‘가정과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의 제한’,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의 선호’, ‘디지털 매체 사용의 부정적 인식’이 학생 필자가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식과 기술 자원을 선택하는 데 행위 유도성과 제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필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검색을 하거나 양식과 기술 자원을 선택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

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필자들은 주로 양식 간 일치와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학생 필자들이 작성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응집성 평가 결과는 복합양식성을 만족한 텍스트 21개 중, 15개가 응집성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집성이 실현되지 못한 텍스트 15개 중, ‘양식 간 설명 불일치’가 6개,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가 5개, ‘설명 부족’이 4개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학생 필자 중, 대부분의 학생은 실제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받고 있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은 종이에 글을 작성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익혀야 자신이 의도하는 생각을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여 포괄적이고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와 매체 사용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탐구를 통해 학생 필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매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디지털 자원의 탐색과 양식 자원 사용에 관한 기술적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네이티브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검색 및 양식 자원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응집성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을 위한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높은 비율의 초등학생 필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응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종이 매체에 글을 작성할 때보다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좀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여 응집성 있는 텍스트를 제작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사용은 이미 우리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의 사소통 방식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어교육에서는 초등학생 필자의 디지털 기기와 매체 활용을 통한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3.11.07. 투고되었으며, 2023.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3.12.0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공성수(2018), 「인식의 확장 도구로서 다매체 글쓰기 연구」, 『리터러시 연구』 9(4), 45-85.
- 백혜선·박소희(2021), 「대학생의 보고서 쓰기에 나타나는 시각 자료 사용 양상-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49, 159-192.
- 변기용(2020), 『근거이론적 방법』, 서울: 학지사.
- 서수현·옥현진(2013), 「아동의 그림일기에 나타난 글과 그림 간의 의미 구성 방식」, 『Korean J. of Child Studies』 34(4), 163-177.
- 양길석·옥현진·서수현(2020),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특성과 가정 변인 간의 관계」, 『교육논총』 40, 199-222.
- 옥현진·서수현(2011),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성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46, 218-243.
- 유승아(2014), 「초등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의미 구성 양상」, 『한국초등국어교육』 54, 295-321.
-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Athukorala, K., Gowacka, D., Jacucci, G., Oulasvirta, A., & Vreeken, J. (2016), "Is exploratory search different? A comparison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r for exploratory and lookup task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11), 2635-2651.
- Bezemer, J. & Kress, G. (2008), "Writing in multimodal texts: A social semiotic account of designs for learning", *Written Communication* 25, 166-195.
- Dahlström, H. (2022), "Students as digital multimodal text designers: A study of resources, affordances, and experienc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3(2), 391-407.
- Dalton, B. (2014), "Level up with multimodal composition in social studies", *The Reading Teacher* 68(4), 296-302.
- Danielsson, K. & Selander, S. (2016), "Reading multimodal texts for learning - A model for cultivating multimodal literacy", *Designs for Learning* 8(1), 25-36.
- Gilje, Ø. (2010), "Multimodal redesign in filmmaking practices: An inquiry of young filmmakers' deployment of semiotic tools in their filmmaking practice", *Written Communication* 27, 494-522.
- Jewitt, C. (2012), Multimodal methods for researching digital technologies, In S. Price, C. Jewitt, & B. Brown(Eds.), *The Sage handbook of digital technology research*, New York: Sage.
- Jewitt, C., Bezemer, J., & O'Halloran, K. (2016), *Introducing multimodality*, New York:

Routledge.

- Kelle, U. (2004), 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In U. Flick, E. von Kardoff, & I. Steinke(Eds.),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Kress, G.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
- Kress, G. (2009),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 Kress, G. & van Leeuwen, T. (2001),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London: Arnold.
- Lorigo, L., Pan, B., Hembrooke, H., Joachims, T., Granka, L., & Gay, G. (2006), "The influence of task and gender on search and evaluation behavior using Google",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2, 1123-1131.
- Meier, S. (2022), "Digital Storytelling: A Didactic Approach to Multimodal Coherence", *Frontiers in Communication* 7, article 906268.
- New London Group (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 O'Halloran, K. L. (2011),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K. Hyland & B. Paltridge(Eds.), *Companion to discourse*, London: Continuum.
- Pahl, K. & Rowsell, J. (2019), *Artifactual literacies: Every object tells a stor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hanahan, L. E. (2013), "Composing "kid-friendly" multimodal text: When conversations, instruction, and signs come together", *Written Communication* 30(2), 194-227.
- Smith, B. (2017), "Composing across mo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adolescents' multimodal composing processes",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2(3), 259-278.
- Sofkova Hashemi, S. (2018), You're meant to read the writing?: Young pupils negotiating meaning from digitally mediated multimodal texts, In C. Osbeck, Å. Ingerman, & S. Claesson(Eds.), *Didactic classroom studies: A potential research direction*, Gothenburg: Kriterium.
- Strauss, A. & Corbin, J. (2001),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 York: SAGE.
- Svårdemo Åberg, E. & Åkerfeldt, A. (2017), "Design and recognition of multimodal texts: selection of digital tools and modes on the basis of social and material premises?", *Journal of Computers in Education* 4, 283-306.
- Unsworth, L. (2006), "Towards a metalanguage for multiliteracies education: Describing the meaning-making resources of language-image interaction", *English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5(1), 55-76.
- van Leeuwen, T. (2005), *Introducing social semiotics*, London: Routledge.

초등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양상 연구

장동민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양식 텍스트 과정에서 초등학생 필자가 선택하는 양식과 기술 자원, 이들이 제공하는 행위 유도성과 제한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작된 복합양식 텍스트 양식의 상호 작용 유형과 응집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필자 25명의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매체 사용 경험’, ‘체계적인 디지털 수업의 부재’, ‘가정과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의 제한’,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의 선호’, ‘디지털 매체 사용의 부정적 인식’은 학생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작성에서 선택하는 양식과 기술 자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필자들은 주로 양식 간 일치와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응집성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디지털 기기와 매체 사용 교육과 응집성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어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행위 유도성, 초등학생 필자, 응집성, 양식 자원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ing Multimodal Text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Jang Dongmi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orms and technical resources selec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eir affordances and limitations when writing multimodal text. Furthermore, it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types and coherence of multimodal text forms produced through the selected forms. In this study, 25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modal text writing processes were screen-recorded and analyz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following were found to affect the form and technical resources selected by students: experience in using digital media, lack of systematic digital classes, restriction of computer use at home and school, preference for simple communication methods, and negative perception of digital media use. In addition, the students mainly wrote multimodal texts using concurrent modes, and coherence was not properly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tudy instructional plans for education regarding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media and the production of cohesive multimodal texts.

KEYWORDS Multimodal Text Composition, Affordance, Elementary School Author, Coherence, Mode Resources